광주·전남경제 글로벌 리스크에 취약
美관세 재발땐 주력산업 수출 11%↓

한은, GEPU 1단위 상승 시 0.06% 감소
연관업 타격 커…일자리 1만2000개 흔들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분산 정책 필요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주력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변화 등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같은 미국발 고율 관세 등 악재가 이어질 경우 광주·전남 주력산업의 수출 규모는 11%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월별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광주·전남지역 주력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광주와 전남의 수출 비중은 2024년 기준 각각 지역내총생산(GRDP)의 38.6%, 59.7%로 전국 평균(36.4%)보다 높아 다른 지역보다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보였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은 특정 산업에 집중돼 관세율 인상과 같은 대외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요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목표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에 맞춰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수(GEPU)가 1단위 상승할 때 광주·전남 주력산업의 수출액은 평균적으로 약 0.0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GEPU는 미국·캐나다·독일·한국·일본 등 18개국의 국가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를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계산된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발생하는 정책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다.

2025년 수준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수의 변화가 있을 경우 주력산업 수출 규모는 약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수출액(약 476억 달러) 기준으로 약 52억4000만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광주는 16억6000만달러, 전남은 52억6000만달러의 생산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고 중간재를 공급하는 연관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국에서 2만61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 중 광주가 5400명, 전남이 71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인 측면까지 분석한 것이다"며 "향후 주요국의 통상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세 부담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 심화와 우회 수출 제약 등 간접적인 부담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수출 리스크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다변화나 산업경쟁력 강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재편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호남권 제조·건설업 부진…서비스는 늘어

민간소비 소폭 증가

호남권 경기가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속에 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및 목포본부가 지역 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하반기 호남권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은 석유화학과 철강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동차가 상반기 선수요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부진했다.

서비스업이 정부의 소비진작책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내수회복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취업자수는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3만5000명 감소에서 하반기 8000명 증가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해 2025년 상반기 상승폭을 유지했다.

주택매매가격은 상반기 0.3% 감소에서 하반기 0.0%로 보합 수준을 보였고 인구는 상반기 491만3000명에서 하반기 489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농신보 광주권역센터,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광주권역보증센터는 최근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가치 구현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농신보 광주센터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어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기관이다.

정부, 설 성수품 '역대최대' 27만t 푼다…할인지원 910억 투입

농·축·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농식품·해수부, 상품권 환급 부스 통합운영…모바일 대기도 운영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한다.

이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배추·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000t(평시의 1.9배)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t을 시중에 내놓는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인 10만4000t으로 늘린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t(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91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은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등에서 최대 40% 할인받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쌀은 최대 4000원(20kg 기준) 할인한다.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대중성어종과 김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성수품 공급 및 물가 안정
- 16대 성수품 **27만t 공급** (평시 대비 1.5배)
-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원 지원** (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 330억원** (전년 대비 60억원↑)

민생 부담 경감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9.3조원 공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 저리 대출** (점포당 최대 1,000만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서민금융 **1.1조원 공급**

국내 관광 활성화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월 15~18일)
- KTX·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30~50% 할인** (2월 13~18일)
- 국가유산(2월 14~18일)·미술관(2월 16~18일) **무료 개방**
  국립자연휴양림(2월 16~18일) **무료 입장**

연합뉴스 자료: 재정경제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며 모바일 대기도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지역 편중 지적을 받은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은 인구수를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날을 지정했다.

설 선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물세트도 저렴하게 공급한다. 농협은 과일, 축산물, 전통주, 홍삼 등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선물용 사과(큰 사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혼합 과일세트 20만개를 공급한다.

수협에서도 고등어·굴비·전복으로 구성한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본부,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방향 교육

농업인·고객 신뢰 확보 논의

농협 전남본부는 28일 나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전남·광주·전북지역 농축협 상임이사와 전무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무역분쟁 확대와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AI 경쟁 심화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상호금융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농업인과 고객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강화 △전사적 연체관리로 자산건전성 확보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혁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융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동심협력(同心協力)' 정신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남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북광주농협 프리미엄 브랜드 '지산 딸기' 본격 출하

올해 출하 200t 이상 전망
농가소득 40억 증가 기대

북광주농협이 브랜드화한 프리미엄 딸기 '오매! 지산 딸기'가 본격 출하됐다.

북광주농협이 브랜드화한 프리미엄 딸기 '오매! 지산 딸기'가 본격 출하되며 고급 딸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북광주농협에 따르면 지산딸기 작목회가 생산하는 '오매! 지산 딸기'는 전남 담양에서 개발된 국산 품종 '죽향'으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설향보다 당도가 높고 향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과육이 단단해 식감이 뛰어나고 저장성이 좋아 유통 과정에서도 신선도가 잘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산딸기작목반은 광주 북구 용강동 일대 조합원 40여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2년 담양에서 최초로 재배된 죽향 품종을 도입해 본격 재배를 시작했다.

올해 출하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됐으며, 생산 물량 대부분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서울청과와 중앙청과를 통해 위탁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지산 딸기 출하량은 192t이었으나 올해는 작황 호조로 200t 이상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고 경매가는 2kg 한 상자 기준 15만원으로, 일반 딸기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북광주농협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농가 소득도 4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농가가 흔들리지 않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산 딸기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시즌2' 모집

세계김치연구소 내달 20일까지 접수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의 과학적·문화적 가치를 세계 식문화 속에 뿌리내리게 할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시즌2'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이끌 국내외 앰배서더를 모집한다.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는 김치 종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과학·문화·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지 식문화·교육·유통 채널에 김치를 정착시키는 공공외교형 전문 인력이다.

이 제도는 연구소가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백수저 셰프'로 알려진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김치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번 시즌2는 장해춘 소장이 지난해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위킴 페스티벌'에서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위촉을 공식 선언한 이후 추진되는 사업이다.

연구소는 단순 홍보를 넘어 각 국가에 '사람'과 '확산 체계'를 남겨 지속 가능한 김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앰배서더 역할을 △커뮤니케이터(홍보) △에듀케이터(교육) △네트워크(현지 연결) △리서처(조사·연구) 등 4개 분야로 전문화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김치의 날(11월 22일)' 상징성을 반영해 국내 11명, 국외 22명 등 총 33명이다. 모집 기간은 2월 20일까지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